

‘희망 2009’ 이것만은 이뤄내자

① 광주 2015 U대회 유치

시민들 열기·노력 한데 모아야

“시민들의 열정과 참여 없이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힘만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박상하 대한정구협회 회장은 광주시가 유치를 나선 2015년 U대회 성공적인 유치 관건으로 시민 참여 열기를 꼽았다.

광주시가 올해 2015년 하계 U대회 유치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 집행위원 27명의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되는 U대회의 가장 큰 평가 항목은 시민들의 대회 유치 열기다. 지난해 3월 광주를 방문한 조지 킬리안 FISU 집행위원장은 “하계 U대회 유치 성공 여부는 시민들

국제대회 지자체 힘 만으로는 한계

4월 현지 실사 때 결집력 보여주자

의 열기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경우 시민들의 간절한 유치열기를 FISU 집행위원들에게 전달해 2003년 U대회를 치러냈다. FISU 실사단원들의 현지 실사에서 유치 열기를 ‘감동’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대구의 한 시민은 FISU의 현지 실사위원이 대구시 숙박업소 실사 과정에서 새로 산 신발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것을 눈치채고 신발을 구입해 즉석에서 제공했다는 일화도 있다.

대구는 시민들의 힘을 결집, 대회를 유치했고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대회기간(2003년 8월 21~31

일) 동안 해의 동포를 비롯해 전국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무려 1만556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회가 열리는 동안 자원봉사 참석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대구·경북 시·도 민으로 구성된 2만8천21명의 서포터즈는 참가국 환영행사는 물론 경기장에서 열띤 응원활동을 펼쳤으며 대회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가깝게는 여수시도 시민들의 열정과 지지를 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치했다. 터키 이즈미르(2005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2009년)도 시민들의 힘으로 U대회를 치러가 나 유치했다.

광주 시민들도 지난해 2013 U대회 유치과정에서 100만명이 유치 서명에 참여했고, 30여만명이 현지 실사에서 환영단으로 나서는 등 지력을 보여준 바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이같은 열기가 2015년 U대회를 유치 과정에서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월께 U대회 유치를 홍보·지원할 시민과 대학생 지원단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이들이 주축이된 광주 시민들은 U대회 첫 관문인 현지 실사를 치러내야 하는 주체가 될 전망이다. 오는 4월 중순 광주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FISU 실사위원들의 주요 채점 항목이 시민들의 참여 열기이기 때문이다.

U대회 유치 실무를 맡고 있는 이기신 광주시 도시마케팅 본부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힘이 결집될 경우 반드시 U대회 유치가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금당산 새해맞이 1일 오전 광주시 남구 금당산 정상에 모인 1천500여명의 시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새해 소원을 담아 풍선을 날리고 있다. 광주시 남구청은 지난 2006년 이후 올해로 4번째 ‘신년맞이 행복 기원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야 쟁점법안 오늘 최종 담판

민주 국회의장실 점거 해제 ... ‘법안 전쟁’ 최대 분수령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여야 3당은 2일 오후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이기 위해 국회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2일 오후 2시가 마지막 협상시한”이라며 “3당 원내대표간 최종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통화에서 2일 오후 2시 최종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당초 이날 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원 원내대표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회담을 미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2차례

비공개 회담을 통해 언론 관련법의 경우 처리시한을 못박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율을 모색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 국회의장실 내 국회의장실 점거를 전격 해제하면서 여야간 합의의 가능성이 무거게 실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력거래소 등 9개 공기업 이전 계획 확정

혁신도시 조성사업 ‘가속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절반이 넘는 9개 공기업의 이전계획이 확정돼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 농업연수원의 지방이전 계획이 지난달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동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17곳 가운데 한국전력거래소, 농업연수원, 한전, 한전KDN, 한전KPS, 전파연구소, 전파진흥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등 9개 공기업의 이전계획이 마무리 됐다.

미확정 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

정보보호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8곳이다.

국토부가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내에 이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本社人事

▲申港樂 마케팅본부장

▲曹庚完 편집국장

<1월 2일자>

5·18 다룬 첫 공인 교과서 보급

광주시교육청, 초·중·고용 ... 체계적 교육 가능

5·18 광주민중항쟁을 전면적으로 다룬 첫 공인교과서가 탄생했다. 5·18이 발생한지 29년만이자, 교과서 집필이 시작된지 3년만에 이뤄졌다. 5·18교과서는 금년 3월 새학기부터 지역 일선학교에 보급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교육청은 1일 “최근 5·18 관련 내용을 다룬 인정도서 2권에 대해 3차례의 심의 등을 거쳐 인정 등록을 마치고 현재 제작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을 통해 5·18 관련 도서가 교과서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5·18 교육이 가능할 전망이다.

초등과 중·고등학교용 2권이며 5·18 기념재단이 제작 실무를 맡고, 지역 초·중등 교사 11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체계적인 교과서 편찬의 필요성을 인식한 교육계 인사와 5·18 단체 등이 2006년 ‘5·18 교육 청소년협의회’를 구성한 뒤 작업이 시작됐으며 집필과 감수, 심의, 등록까지 3년이 걸렸다.

광주 금호초교와 광주자연과학고 등 4개 학교가 내년부터 재량활동 시간 활용,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점차 타 학교로 사용이 확대될 계획이다.

시 교육청도 5·18 관련 첫 인정 교과서인 만큼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권장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3개 단원 122쪽으로 구성된 초등학생용은 5·18민주화운동 전개과정,

5·18에 담긴 정신, 함께하는 5·18 등으로 구성됐다.

173쪽 규모인 중·고등학생용은 ‘나와 5·18’, 5·18 민주화운동, 5·18과 문화, 5·18 정신 이어받기, 아시아의 광주, 세계속의 5·18 등 5개 주제로 이뤄져 있다.

집필진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5·18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1월 1일 대체 휴무로 3일자 신문 쉽다

2010학년도 대비 채수 선형 학습반 모집안내

기간: 2009년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19:00~21:00)

대상: 선형학습반에 한하여 선형수학 부서별 1학년 (1)수준별 반 4개반

개요: 1. 1월 21일 개강식 후 2월 10일까지 4주 과정의 학습

개강내용: 2009년 2월 10일 개강식 후 2월 10일까지 4주 과정의 학습

특징: 1. 2009년 1월 21일 개강식 후 2월 10일까지 4주 과정의 학습
2. 선형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선형수학 학습
3. 선형수학의 기초를 확고히 하기 위한 선형수학 학습
4. 선형수학의 응용을 위한 선형수학 학습
5. 선형수학의 실용을 위한 선형수학 학습
6. 선형수학의 심화 학습을 위한 선형수학 학습
7. 선형수학의 심화 학습을 위한 선형수학 학습
8. 선형수학의 심화 학습을 위한 선형수학 학습

문의: 062-2200-5000

www.kwangju.ac.kr